

태고종 국제구호 '시동' '나누우리' 창립준비위 라오스 방문

태고종이 본격적인 국제구호 활동에 나선다. 국제포교 및 구호활동에 뜻을 같이 하는 태고종도들의 모임 '나누우리' 창립준비위(위원장 묵원, 전 총무부장은)는 11월 2-8일 7일간의 일정으로 라오스를 방문해 지구촌 소외계층에게 자비행을 펼쳤다. 창립준비위는 라오스 방문 첫날인 3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의 승가대학을 방문해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했으며 5일 방비엥 인근 고산족 마을을 방문해 슬리퍼 150족, 옷 200여 벌 등 필수품을 전달했다. 또 6일에는 고산족 초등학교 2곳을 방문해 공책 800권, 볼펜 600자루 등 학습용품과 축구공 8개를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내년 초 예정된 '나누우리' 창립식을 앞둔 사전 답사 성격인 이번 방

문에서 창립준비위는 내년 상반기 중 라오스 투앙프라방 인근 고산족 마을에 초등학교도 건립하기로 결의했다. '나누우리'는 이와 함께 태고종 국제구호기구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창립준비위원장 묵원 스님은 "라오스에는 학교는 고사하고 아직 맨발로 생활하는 아이들도 많다"며 "각 지역현실에 맞춰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겠다. 향후 중단 차원의 국제협력기구도 승화·발전시킬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라오스 방문에는 중앙사정원장 월운, 총남종무원장 해산, 총무원회 공책 800권, 볼펜 600자루 등 학습용품과 축구공 8개를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내년 초 예정된 '나누우리' 창립식을 앞둔 사전 답사 성격인 이번 방

노덕현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중생 아픔 같이하는 사찰로...

마곡사 주지 진산식 대신 '자비의 김장 나눔'... 김치 오천포기·쌀 천포 보시



마곡사의 '자비의 김장 나눔 한마당' 행사에서 김치를 버무리는 이원구 총남도지사, 원혜 스님, 자승 스님, 주호영 특임장관, 이준원 공주시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공주 마곡사 주지 진산식을 대신 해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보시하는 '자비의 김장 나눔 한마당' 행사가 열려 지역민의 찬탄을 얻었다. 11월 25일,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이날 행사를 통해 김장김치 5000포기와 쌀 1000포를 관내 소외계층 이웃에게 전달하고 지역민의 고충과 아픔을 함께하는 사찰이 될 것을 발원했다. 이번 김장김치에 사용된 배추는 지난 9월 23일 마곡사 생태도량선포식에서 심은 7000 포기의 배추 중 사찰내 사용분을 제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김장나눔 한마당은 마곡사가 '마음을 맑히는 수행도량', '자연과 하나 되는 생태도량', '이웃에 희망주는 나눔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발심의 범석이자 쉽지 않은 정진하고자 하는 다짐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혜 스님은 "마곡사 사부대중은 충청지역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는 도량, 지역민과 소통하는 도량이 될 것을 발원한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세계사적 격변 속에서

경제위기, 계층과 지역간의 갈등, 사회 혼란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때, 마곡사의 자비배추 김장 나눔 행사는 지역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함으로써 소통하고, 자비를 나눔으로써 화합하는 불교적 소통과 화합의 모범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치하했다. 사부대중 10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수덕사 주지 응산스님,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과 주호영 특임장관, 이원구 총남도지사, 이준원 공주시장, 심대평 국회의원 등 내외 인사들이 함께했다. 김성우 기자

히말라야 트레킹 성료

본사 세종문화원 공동

현대불교신문사와 네팔 카트만두 소재 세종한국문화 언어교육원이 공동 주최한 '영봉스님과 함께하는 히말라야 트레킹'이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중앙 히말라야 피케이(Pikey)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비구스님 4명과 거사 3명, 우바이 7명 등 14명이 함께 한 트레킹은 불교계 언론사상 처음으로 진행 됐다. 관련기사 18~19면 임연태 기자

백양사 아단법석 "깨달음의 길 제시"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가 11월 21일 오후 2시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주제로 4박5일간 아단법석의 문을 열었다. 이번 법회는 지난 8월 지리산 실상사에서 열려 불교계 안팎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아단법석'에 이은 두 번째 법회다.

백양사 교육관에서 거행된 입제식에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익산 사자암 주지 항봉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전국 각지에서 동참했다. 관련기사 5~12면 김성우 기자



前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정부는 '고해 건너는 배' 같은 존재 돼야"



대구 심인고 다니며 '자리이타' 새겨
'주인정신'으로 정치에 관심 기울여야

"불가에서는 삶을 고해(苦海)라고 합니다. 정부는 그런 위험을 보장해 주는 '고해(苦海)의 배'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유시민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 24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주최한 불교미래사회포럼에서 '부자를 위한 복지, 서민을 위한 복지'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유시민 前 장관은 여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 국가라고 주장했다. 유 前 장관은 우리나라 복지정책 현황에 대해 "제도 운영 기반

이 취약하고 제도 적용의 폭과 깊이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꾸준한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前 장관은 부처님의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참된 삶을 살아라'는 말을 예로 들면서 문명정부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배움과 나눔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前 장관의 이러한 사상은 진각종립학교를 다니며 확고해졌다. "저는 진각종립 대구 심인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불교 과목을 수강하면서 들었던 말 중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말이 자리이타

(自利利他: 자신뿐 아니라 남을 위해 불도를 닦음)입니다." 유 前 장관은 "우리 마음 안에 서는 권력에 대한 갈망과 공감·배려·나눔이 공존하면서 갈등하고 있다"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前 장관은 "정당과 정치를 직업정치인들의 전유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이 정당과 정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한다"면서 "국민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주 기자

금주의 HAT.....

빛고을아카데미 법륜 스님
14지상중계

학술강연회 박성배 교수
13불자들

제1차 만해포럼 박원순
04종합

현대불교@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31)792-6288
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전문
운주사

기초선(유년) 삼시수련의 평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011-336-4665
대안불교조계종 전년도교소백선
용문사

얼레미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茶具
생할 도자기
창도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흥포하는
필거품으로 사용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ARS 포교지원
0 60 - 700 - 10 80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지등 승강장치 _ 대구 여려사 연등 지등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C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중등 주문 받습니다(사질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육바리밀 만월등(육바리밀 주름등) 팔각봉촉접등 중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